

약물관련 이슈

마약성 진통제의 딜레마 (3)

저자 최혁재
경희의료원 예제팀장
약학정보원 학술자문위원

개요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르는 부작용의 발생도 간과할 수 없다. 중추신경계 부작용과 급격한 내성 발생, 심한 금단 증상, 호흡 억제 등의 전신적 부작용 외에도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다. 특히 초회 투여에서는 용량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보도 중요하다. 따라서 치료상의 유익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다른 동반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약제와의 약물상호작용도 확인하는 것이 치료 실패에 이르지 않는 길이다. 또한 처방에 앞서 통증을 다각도로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투약과정에서 처방전 발행, 약물의 보관 및 혈중 농도 모니터링 과정에서 약사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한 오남용의 방지책이 될 수 있다. 불법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한 노력은 정부 각계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요 감축을 위한 대중 교육과 계몽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약사들의 약물오남용예방 교육에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키워드

마약성진통제, 부작용, 안전사용, 오남용 예방교육

4. 마약성 진통제 사용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

국내 의료계에서는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치료상의 유익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을 보인다.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으로 흔히 어지러움, 구역, 가려움,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변비를 제외한 다른 부작용들은 용량만 잘 조절하면 금방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드물지만 면역계나 내분비계의 변화가 올 수 있지만, 통증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각한 문제이므로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 그렇게 가벼운 편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메페리딘(Meperidine)같은 경우에도 반복적인 사용이 지속될 경우, 중추신경계 부작용(경련, 불쾌감, 초조함)과 함께 급격한 내성 발생을 초래할 수 있어 암성 통증 같은 만성 통증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고, 모르핀은 무호흡, 저혈압, 변비, 오심, 구토, 소양증, 발진 및 호흡억제가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갑자기 약물투여를 중지하거나 용량을 급속히 감소시키면 호흡, 맥박이 빨라지고 눈물, 콧물, 발한, 사지 떨림, 설사, 경련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특히, 모르핀의 만성 중독에 빠지면 금단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데인도 오심, 구토, 변비 등의 일반적인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외에도 시력장애, 발한, 호흡억제, 혼수, 이명, 흥분, 경련 등의 전신적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보편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진 변비는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

시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구토나 졸음 등의 부작용은 적응과정에 따라 증상이 약해질 수도 있지만, 변비는 완화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어 변비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호흡부전도 환자에 따라 급작스럽게 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특히 처음 투여하는 환자에게는 적정 용량을 가능하기 힘들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치료상의 유익을 얘기할 때, 항상 동반하여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법의 신뢰를 높여주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저질환 및 다른 동반 질환에 사용하고 있는 약제와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와의 약물상호작용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혈중농도의 유지가 필요한 타약제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반대의 영향을 받는다면 예기치 않은 치료 실패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분명 마약성 진통제의 효용가치는 아직 대중의 선입견이나 약물요법의 경험부족 등에 의해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면도 많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료 완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선택과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대효과에 도달할 때까지 제한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도 국내에서 나오고 있다.

(1) 의료계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

2013년 개최된 ‘암성통증관리’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통증은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으며, 심리적, 정신적인 지원 및 치료가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통증을 포괄적으로 보면서 통각적인 요소, 신경세포의 흥분 정도, 척수에서의 감각증폭 여부 및 교차성 흥분에 의한 통증의 발현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며 마약성 진통제만으로 모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그 외에도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을 때, 급하게 용량을 올리기보다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통각과민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오히려 사용량을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의료 기관에 내원하여 합법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중독여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현실, 즉 마약성 진통제의 유통규모가 커지면 치료 외 목적의 사용과 이에 따른 불법적인 유통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펜실베이니아 치료연구소의 토마스 맥라렌 박사팀이 불법 구입 약제의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한 항목 가운데 약사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았다.

- 1)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결정할 때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사용 경험과 현재의 사용 상황을 환자에게 질문한다.
- 2) 환자로부터 다음의 항목이 들어있는 동의서를 받는다.
: 복용 빈도, 처방전 분실 시, 즉시 재발행하지 않는다는 조건, 약물의 안전한 보관, 1곳의 병원에서만 처방받음, 요검사에 의한 모니터링 동의 등

결국 다른 약물들과 마찬가지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정확한 복용과 보관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모니터링과 오남용의 폐해에 대한 이해 등 약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부분 등을 모두 포함

해서 사용될 때, 가장 안전하면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불법의약품 유통근절을 위한 노력

식약처에서도 2013년부터 팡게아 프로젝트(Pangea Project)를 가동하며 이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 인터폴, WHO, 각국 의약품 규제 당국 및 관세 기구 등이 참여하는 대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팡게아 프로젝트는 현재 미국 등 100여개국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서 불법의약품의 판매 사이트의 급증과 외국에서 제조된 불법의약품들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불법의약품 판매 사이트의 자생력은 놀랄만하다. 2010년에만 822개의 사이트를 차단했지만, 2011년에는 2,409개, 2012년에는 10,912개로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배경을 보면 국내 IT 환경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이트의 개설자를 추적하면 관련자와 전혀 관계없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서버가 아예 국외에 있어 압수수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즉,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유해 검색어가 되므로 찾을 수 없지만,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주소창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서버로 찾아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적 차단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4년에도 약사감시의 정책방향을 보면,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유해사이트를 소비자들이 직접 적발하고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차단은 쉽지 않다.

(3) 근본적 수요차단을 위한 오남용 방지 계몽 교육

전술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약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제기된다. 즉,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적극적 참가를 통해 청소년기 이전부터 약물 자체에 대한 이해와 안전한 사용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고, 불법적인 약물 사용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수요 감축 정책이 공급 억제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엄벌위주의 강력한 단속이나 국내 불법 유통조직의 밀반입 차단과 검거는 범세계적으로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서도 얘기한대로 유통을 차단하는 정책만으로는 어렵다. 근본적 원인이 되는 수요가 살아있다면 시일이 지나면서 불법 오남용의 확산방지 효과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미미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심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대국민 대상 계몽과 교육이 끊임없이 필요하며, 실제 사례의 생생한 체험 등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등의 불법 오남용에 대해 근원적으로 경계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어 예방하는 교육의 효과가 어느 분야에서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약사 Point

1. 마약성 진통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 시 부작용의 발현,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발현 여부 및 적절한 사용의 모니터링 등에 적극 참여하여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2. 조기 중독 발현의 예방 및 불법 약물사용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차단하기 위하여 약사들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참여가 절실하다.

■ 참고문헌 ■

1)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1239877096&cp=nv>

2) 네이버 블로그, <http://convertanddevelop.tistory.com/28>

3) 일간보사, http://www.bosa.co.kr/umap/sub.asp?news_pk=344500

4) 2014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2014년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Special Lecture

5) 쿠키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arcid=0007336163&cp=nv>

